

설교통역의 충실성에 관한 고찰 — 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 통역 중심으로 —

신 혜 인
(한동대)

1. 서론

좋은 통역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제1의 조건은 번역과 크게 다르지 않게 텍스트 혹은 원발화자의 발화에 대한 정확성 (accuracy) 혹은 충실성(fidelity)을 들 수 있다. 1953년 창설된 국제번역가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Traducteurs, FIT)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번역가헌장 제1조의 번역가의 제반의무에서도 충실한 번역이 강조되고 있으며,¹⁾ 번역윤리나 번역규범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에서도 정확성 또는 충실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Pöchhacker 2008, 김영신 2009, 이지은 2011, 신지선 2012, 김가희·박윤희 2013, 김혜경 2018, 윤성우·이향 2018, 이향 2018 등).

번역학과 맥을 같이 하는 통역학도 원발화자의 발화에 대한 충실성을 성공적인 통역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최소희 2001a: 273-275). 통번역사는 ‘투명한 매개자’ 혹은 ‘중립적 전달자’여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통번역사가 중립적 매개자를 넘어서서 다양한 결정을 통해 통번역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김순미 2010: 51). 통번역사는 자신의 의견과 의도가 아닌 원저자 혹은 원발화자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독자 혹은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시된다.

한편 번역학 분야에서 저자의 의도에 대한 충실성 이외에도, 도착어에 대한 충실성, 도착어 독자에 대한 충실성까지 포함하여 번역의 충실성 개념을 논의하는 견해도 있다. 단어나 문맥의 차원을 넘어 저자의 차원에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충실해야 하고(저자의 의도에 대한 충실성), 도착어의 문맥시스템 규범을 존중하여 타당성과 가독성을 높여야 하고(도착어에 대한 충실성), 도착어 독자의 기대치 및 그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도착어 독자에 대한 충실성)는 것이다(Kolawole and Salawu 2008, 김가희·박윤희 2013).

이와 같은 견해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통역학에서의 충실성은 협의로는 원발화자의 발화에 대한 충실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광의로는 도착어 독자에 대한 충실성(도착어에 대한 충실성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은 통역의 한 분야인 설교통역 분야에서의 충실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국제회의통역, 커뮤니티통역, 사법통역, 의료통역, 대화통역, 위스퍼링통역 등 통역의 분야 및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통역의 충실성이 통역 환경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선행연구가 존재하는데(최소희 2001b: 225-238), 이 글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 의식을 설교통역 분야에 좀 더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성경번역학자 유진 나이다(Eugene Nida)²⁾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경 번역에서 충실성은 번역의 가독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원문의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원문의 독자가 느낀 감동을 번역문의 독자가 최대한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는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 개념을

1) FIT 번역가헌장 제1조 제4항: 모든 번역은 충실하게 원문의 아이디어와 형식을 정확하게 옮겨야 하며 번역 충실성은 번역가의 도덕적, 법적 의무이다(필자 번역).

2) ‘유진 나이다’로 발음하기도 한다.

소개하였다. 나이다의 역동적 등가 개념은 번역형식보다 의미전달을 우선시하고 있고, 원문의 의미 보존을 위해 필요시 형식을 변형하여 독자에게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는 번역방법을 제시하였다. 나이다는 성경의 저자가 당시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쉬운 언어로 소통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가는 하나님이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도착문화와 도착언어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야 한다고 보았다(Nida and Taber 1969: 3-8).

좋은 설교통역에 대한 조건의 중심에는 원발화에 대한 충실성 및 정확성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설교통역에서의 충실한 통역이 원발화에 대한 충실성 및 정확성만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라이스(Reiss)의 텍스트 유형에서 볼 수 있듯 종교적 텍스트를 다루는 설교통역은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호소성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호소성 텍스트 특성상 정확한 통역과 더불어 매끄러운 전달력이 강조되기 때문이다(Reiss 2000: 24). 성경번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설교통역에서 충실한 통역은 형식과 형태의 보존보다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고 이를 위한 재구성은 충실한 통역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설교통역의 충실성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1973년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의 한국전도대회에서의 김장환 목사 통역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김장환 목사의 1973년 한국전도대회에서의 설교통역은 성공적인 설교통역사례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다. 첫째, 1973년 전도대회는 한국의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계기로 설명되고 있는데 특히 김장환 목사의 탁월한 통역이 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역사신학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용국 2018:162). 둘째,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자인 하크네스(Harkness) 교수는 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에서의 통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설교자와 통역사간의 이상적 조합에 대해 조명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Harkness 2017). 셋째, 당시 이 전도대회를 통해 예수를 새롭게 믿기로 작정한 결신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대한기독교서회 편집부 1973: 47). 넷째, 다수의 언론에서도 “설교보다 통역이 더 잘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김장환 목사의 통역은 설교자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전달해주었다”(박동현 2016), “‘빌리 김’으로 불렸던 김 목사는 그레함 목사의 웅변 조 설교를 탁월한 영어 실력과 열정적인 제스처로 완벽하게 통역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서화동 2013)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김장환 목사의 설교통역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73년 한국대회의 개회 설교와 폐회 설교 내용 일부를 대조하여 김장환 목사의 설교통역을 분석하고 설교통역에서의 충실성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하크네스는 김장환 목사의 설교통역에 대한 연구에서 ST와 TT간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역동적인 제스처, 목소리 톤 등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넘은 의미의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하크네스의 연구와는 달리 ST와 TT간의 관계를 검토하면서도 통번역학의 관점에서 통역의 충실성 개념에 초점에 맞추어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설교통역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특징을 먼저 살펴본 다음, 김장환 목사의 설교통역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설교통역에서의 충실성이 원발화자의 발화에 대한 충실성에 머무는지, 아니면 이보다 확장된 개념을 요구하는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이다의 역동적 등가 번역충실성에 대한 정의를 확장시켜 주었듯, 본 논의를 통해 소통성을 강조하는 통역의 충실성 정의를 넓혀줄 수 있는지, 또한 이것의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2. 설교통역사 역할에 대한 청중 기대 및 설교통역 커뮤니케이션 모델

연사 중심적 발화를 대중을 상대로 단일방향으로 통역한다는 점에서 국제회의통역과 설교통역이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신혜인 2015: 98). 국제회의 통역 등 통역사가 중개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는 연사와 청중이 있고 이들을 중개하는 통역사가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연사 → 통역사 → 청중

텍스트의 장르의 목적에 따라 번역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라이스는 설교를 정치인의 유세연설과 비슷한 효과중심 텍스트로 이해하였고, 번역 방법으로 각색과 번안을 제안하였다(Reiss 2000: 41-42). 예를 들어 정치적 유세연설에서 연사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발화하고 청중은 연사의 공약을 듣고자 한다. 이때 라이스는 효과의 등가 달성을 위해 자유로운 번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설교는 유세연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갖고 있다. 이는 연사와 청중간 커뮤니케이션 중심에는 하나님(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설교통역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최초 발화자(initiator)는 하나님(혹은 성경)이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의 운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정장복 2011: 34, 41-45). 설교통역사가 중개하는 설교통역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 [연사 → 통역사] → 청중

연사(설교자)와 통역사는 결국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전달이라는 동일한 임무를 갖고 있다. 연사 혹은 설교자의 역할에 대해 이어령은 설교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통역’하는 사람으로 자기 뜻대로 말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이어령·이재철 2012: 313). 이는 설교통역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청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설교통역사는 사실상 중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설교통역사에게는 ‘이중의 충실성(dual loyalty)’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대한 충실성이고, 둘째, 설교자의 설교내용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설교통역의 충실성은 직접적으로는 설교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궁극적으로는 설교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성경)의 취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³⁾

청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청중은 설교통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설교

3) ‘청중’에 대한 충실성은 청중의 수용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 본 충실성 개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설교통역사에게 기대되는 주요 조건은 정확한 통역이고 이를 위해 올바른 성경의 이해와 정확한 성경적 표현 및 용어의 사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 나아가 통역사의 ‘확고한 신앙에 따른 소명의식,’ ‘영성,’ ‘겸손’ 등 통역사의 자세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설교통역사에 대한 청중의 공통된 기대를 종합하면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자질이 통역사에게도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신혜인 2013: 167-171).

아울러 효과적인 설교통역을 위해 통역사는 단순히 의미를 해석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자가 아닌 그 이상의 역할, 즉 준 설교자 혹은 동료 설교자(co-preacher)라는 인식하에 텍스트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 국외 설교통역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Karlik 2013, Balci Tison 2016, Downie 2016, Hokkanen 2016).

국제회의통역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설교통역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텍스트 성격, 연사의 목적, 청중의 기대와 통역사 역할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국제회의통역 커뮤니케이션과 설교통역 커뮤니케이션 상황 비교

	국제회의통역 커뮤니케이션	설교통역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성격	연사 중심적	하나님(성경) 중심적
연사의 목적	자신의 주장 소통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내용 소통
청중의 기대	연사의 생각, 의견 청취	연사 통한 하나님의 말씀 청취
통역사 역할	연사의 의도 전달	연사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전달; ‘동료 설교자’

3. 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 통역에 대한 분석

1973년 빌리 그레함의 한국전도대회⁴⁾는 한국교회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4)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1918~2018) 목사는 1973년 방한하여 5.30-6.3(5일)간 여의도광장에서 총 5회의 집회를 인도하였다. 5일간의 서울대회

것으로 많이 평가되고 있는데, 당시 성공적인 한국 집회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김장환 목사의 한국어방향 순차통역이었다(김용국 2018). 빌리 그레함 자서전에서도 한국집회의 감동이 따로 언급되고 있다(빌리 그레이엄 2001).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BGEA)에서 제작한 한국전도대회 관련 동영상에서도 김장환 목사의 수려한 통역으로 인해 1973년 한국대회에 참석한 주한 미군이 김장환 목사가 설교하고 빌리 그레함 부흥사가 통역한 줄 알았다고 소개하며 설교자와 통역사간 완벽한 일체감을 증언하고 있다.⁵⁾ 빌리 그레함의 전기 작가의 회고록에서도 1973년 한국전도대회는 설교자와 통역사간 혼연일체를 가장 잘 보여준 집회였다고 기록하고 있다(Pollock 1979). 설교통역의 충실성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언어적 요소의 측면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내용(ST)과 김장환 목사의 통역내용(TT)을 대조해 보고 언어적 측면을 평가해 본다.

3.1. 빌리 그레함 목사의 발화(ST)와 김장환 목사의 통역(TT) 비교 검토

일반적으로 긴 말차례(turn-taking)로 많은 정보량을 한 번에 전달하기 때문에 노트테이킹을 수반한 국제회의 순차통역과 달리 설교통역은 소통의 박진감을 위해 문장 대 문장으로 순차통역된다. 이하에서는 1973년 한국대회때 개최 설교(1973.5.30.)와 폐회 설교(1973.6.3.)의 빌리 그레함 목사의 발화(ST)와 김장환 목사의 통역(TT)의 일부 내용을 대조분석해 보았다.⁷⁾ ST-TT 대조를 용이하

때 300만명이 참석하였고, 마지막 날(6.3) 집회때는 112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후 한국교회의 비약적 발전의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중기 외 1982:31).

- 5) 김장환 목사(1934~)는 현재 극동방송 이사장이며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로, 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 당시 만 39세로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시무중에 있었다. 1977년 극동방송 사장 취임후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82), 무궁화장('93)을 받았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유색인종으로는 처음으로 침례교세계연맹(BWA)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 6)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BGEA) <https://www.youtube.com/watch?v=PQDLjd57vdE> 참고
- 7) 개최 설교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1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기념책자에서 제공한 영한대역을 참고하였으며, 폐회 설교는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참고로 1973년 한국전도대회의 폐회 설교관련 영상은 블로그 혹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게 하기 위해 발화 및 그에 따른 통역을 정보 등장 순서에 따라 숫자화 했는데, 연사의 발화는 홀수, 통역은 짝수로 등장한다(밑줄은 필자).

〈표 2〉 1973년 한국전도대회 개최설교 중 ST-TT 대조 (1973. 5. 30.)⁸⁾

ST (빌리 그레함 목사)	TT (김장환 목사)
1. <u>God</u> says, the result of your sin is death.	2.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3. We are going to spend eternity away from God.	4.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5. But Jesus said, " <u>I will take the death. I will take the punishment. I will take the judgment.</u> "	6.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 <u>내가 대신 지겠노라,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당하겠노라.</u> "
7. So He went to the cross.	8.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9. They nailed him to the cross.	10.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11. They put spikes in his feet.	12. 그 발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13. They put a spear in His side.	14. 그 옆구리에다 창을 찔렀습니다.
(중략)	
15. <u>In ancient Seoul and many years ago, there were eight gates to this great city.</u>	16. 서울엔 8개 문이 있습니다.
17. But there's only one gate to Heaven.	18.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9. Jesus said, "I am the way."	20.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니 다른 길을 통해서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21. There's no other way except through Him	22. 오직 예수만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23. <u>Have you come to Christ?</u>	24.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언어적 측면에서 원메시지와 통역을 비교해 보면 전통적 의미의 형태적 통역 충실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주어 변경 등 재구성, 내용 단순화, 정보추가, 뒤양스 변경 등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

8)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편 (1983)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 발단에서 결과까지』 46-56면에서 발췌하였다.

래와 같다.

- 주어변경 및 재구성의 사례: 발화1의 주어는 ‘하나님(God)’이었으나 통역2에서는 주어가 ‘성경’으로 바뀌면서 성경의 구절⁹⁾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재구성되었다.¹⁰⁾
- 내용 단순화: 발화5와 발화15는 통역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단순화되었다. 발화5의 “I will take the death. I will take the punishment. I will take the judgment”에서 예수가 짊어질 내용으로 “I will~”이 3회(사망, 형벌, 심판) 등장하였으나 통역에서는 두 가지(“내가 대신 지겠노라,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당하겠노라”)만 전달되었고 내용도 ‘대신 진다’, ‘고통’으로 변경되었다. 연사의 발화15를 보다 충실히 통역하면 “오래전 옛 서울 한양 도성에는 8개의 관문이 있었다”였으나 통역은 “서울엔 8개 문이 있습니다”라고 로 짧게 통역되었다. 또한 원발화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고대 서울의 8대문(사대문, 사소문)을 뜻하였으나 통역은 현재형 시제로 변경되면서 서울에서 철거되고 복원되지 않은 문들을 감안할 때 오역이 되었다. 통역사는 이를 의식했는지 이와 관련 내용을 축소하였다.
- 내용 추가 및 부연설명: 발화19에서 연사의 “내가 길이다”가 통역24에서는 “내가 길이니 다른 길을 통해서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부연설명(밑줄 부분)이 추가되었다. 곧이어 발화21에서 연사가 유사한 내용을 말하였고, 그 때문에 통역사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며 강조하였다.
- 뉘앙스 변경: 발화23의 “Have you come to Christ?”(“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는 질문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역24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라는 촉구형으로 뉘앙스가 변경되었다.

폐회설교에서도 통역 재구성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

9)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10) 이 부분은 연사의 발화에 대한 문자적인 충실성의 관점에서 보면 충실한 통역이 아니라 불 여지가 있다. 다만 연사의 발화취지를 고려한 넓은 의미의 충실성의 관점에서 보면 달리 볼 수도 있다.

면 아래와 같다.

〈표 3〉 1973년 한국전도대회 폐회설교 중 ST-TT 대조 (1973.6.3.)¹¹⁾

ST (빌리 그레함 목사)	TT (김장환 목사)
1.I was at <u>Heartbreak Ridge</u> .	2.거기 그때 저는 일선 최전방 산에 있습니다.
3.And on <u>Heartbreak Ridge</u> there were 12 soldiers.	4.최전방 그 산에 12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5.They were American soldiers huddled together.	6.미국 군인들이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7.An enemy sneaked through the line.	8.바로 거기 일선에 적군 한 사람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9.He threw a hand grenade in the middle of them.	10.거기에 조그마한 폭발물을 던졌습니다.
11.It was going to go off in 3 seconds.	12.3초 후에 그 수류탄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13.A soldier saw it.	14.군인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15.And he jumped on top of it.	16.그 군인은 거기 덮었습니다.
17.He grabbed it.	18.그것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19. <u>Pulled it to his heart.</u>	20.자기의 마음 가운데다 끌어 넣었습니다.
21.It exploded.	22.거기서 폭발했습니다.
23.But his friends were saved.	24.그러나 그 친구들은 다 살았습니다.
25.They took what was <u>remaining of his body</u> back to America.	26.조금 남은 그 시체를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27.And when they held the <u>memorial service</u> for that soldier,	28.그 군인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29.the <u>clergyman</u> took the text that I want to take today.	30.목사님의 본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31.It is found in John's Gospel in the Bible.	32.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33.The 15 th chapter of John. (중략)	34.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5.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at h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36.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11) 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 동영상 중 59분27초분량 기준 영상 중 27분26초 시점에서 시작되는 부분이다. 현재 인텟넷에는 짧게는 2-3분, 길게는 근 1시간 분량의 1973년 한국전도대회(폐회 설교)관련 영상이 다수 있다.

37. <u>You're the friend of Jesus.</u> 39. He laid down His life for you.	38.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40. 여러분을 위해서 그가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41. <u>But then something else happened.</u> 43. They buried Him.	42.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4. 땅속에 다 파묻었습니다.
45. <u>They said, "We're finished with him."</u> 47. But on third day, He rose again.	46. "우리는 이제 다 마쳤다." 48.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죽음에서 살아 나셨습니다.
(중략)	
49. What a moment to receive Christ! 51. Let him come and change your life.	50. 예수를 믿는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52.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53. <u>Now it'll cost you something.</u> 55. You can't take your sins with you. 57. You have to give up all other gods. 59. And turn to Jesus Christ only as your Savior.	54. 댓가가... 56.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58.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60.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셔야 됩니다.
61. And if you will do that, 63. He will come to live in your heart.	62.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64.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입니다.
65. He will give you a new love for everyone.	66.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위 폐회 설교 발화1과 발화3에서 등장하는 'Heartbreak Ridge' 라는 고유명사는 통역2와 통역4에서 '최전방 산'으로 옮겨졌다. 'Heartbreak Ridge'는 미군이 한국의 '단장의 능선'을 의역한 것으로 한국전쟁 말기 치열한 격전이 있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¹²⁾ 그러나 이 지명이 설교의 핵심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통역사가 지명 보존 대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군인이 목숨을 구한 상황의 묘사를 속도감 있게 전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발화27의 'memorial service'(추모 혹은 추도예배)를 통역28에서 '예배'로 간단히 통역하며 오히려 박진감 있게 옮겨졌다. 재구성도 효과적으로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발화29("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본문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셨습니다")가 통역30("목사님의 본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으로 소통되면서 자연스럽게 듣기 편한 통역이 되었다.

12) 원래 'Heartbreak Ridge'는 한국 강원도에 위치한 고지(高地)다.

통역한 내용 중 일부 어색한 단어와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직역하면서 생긴 문제로 분석해볼 수 있다(예. 통역20의 '자기의 마음 가운데다 끌어 넣었다', 통역26의 '조금 남은 그 시체'). 그러나 워낙 속도감 있고 매끄럽게 통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았다.

폐회 설교에서도 뉘앙스의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발화37의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가 통역38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발화51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가 통역52에서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로 재구성되었다. 발화41의 "그러나 그후~"가 통역42에서 "그 다음에~"로, 발화53의 완전한 문장이 통역54에서는 단어만 제시되었다. 메시지와 통역 전문을 보면 통역46처럼 따옴표(" ") 내용만 전달한 경우 혹은 완벽한 문장이 아닌 핵심 몸통만 통역한 경우(통역28)도 있었다.

이처럼 ST-TT 대조시 주어/시제의 변경, 정보 축소/추가 등 재구성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의미전달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매끄럽게 주요 정보를 전달하며 몰입도를 높인 것을 볼 수 있다.

3.2. 김장환 목사 통역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은 김장환 목사의 설교통역은 기존 일반 통역의 충실성 평가 기준으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성공적인 통역으로 평가되고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개회 및 폐회 설교에서 내용 추가, 단순화, 뉘앙스 변경과 재구성이 있었으나 연사의 발화와 비교하지 않고 통역만 보고 들을 경우 신자가 느끼기에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성경'으로 주어가 변경된 경우(개회 통역2),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은 동의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오히려 메시지의 신뢰감을 배가시켰다. 또한 내용의 단순화 등 부분에서도 내용의 변경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일례로 개회식 메시지 발화5에서 예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짊어진 것이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이 맞기 때문에 내용 충실성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내용 부연 설명(개회 통역24)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핵

심 진리를 통역사가 거듭 강조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역 전략으로 볼 수 있었다. 오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독교 주요 교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부차적인 정보였기 때문에 소통에 방해되지 않았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1973년 한국전도대회 폐회 설교에서 스스로 밝혔듯 본인의 설교목적은 불신자에게 예수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설교내용이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았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전반적으로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였고, 중요한 단어는 여러 번 반복하여 짧지만 강렬한 설교를 하였는데, 김장환 목사의 통역이 성공적인 통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불신자 전도를 목적으로 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 의도를 정확히 살려서 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자 중심의 통역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예수 믿기를 초청하는 질문형 문장(개회 발화23)을 통역사는 촉구하는 문장,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개회 통역24)로 재구성하였고 설교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효과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폐회 설교에서도 발화51의 “Let-”로 시작되는 영어 문장이 통역52에서는 촉구형(“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으로 변경되었으나 설교자의 간절한 마음과 의도를 오히려 살리고 호소력을 증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 구분과도 맞는 전략으로 통역 자체만 들어도 통역된 내용이 명료했고 듣기에도 자연스러웠다. 전반적으로 김장환 목사의 통역이 한 편의 설교처럼 성경적, 기독교적 표현과 어휘가 정확하고 매끄럽게 나왔고, 성경인용 부분(예. 개회 발화23, 폐회 발화35)은 물 흐르듯 수려했고 힘있게 전달되어 통역이 아닌 본인의 설교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

김장환 목사의 설교통역에서 온전한 한국어 문장이 아닌 문장의 앞뒤를 자르고 몸통만 전달한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김장환 목사의 의도된 통역 전략으로 속도감, 박진감 있는 통역으로 청중의 주의력을 잃지 않고 연사와의 일체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김장환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¹³⁾ 또한 인터뷰 결과, 설교자의 발화가 길거나 어려울 경우 핵심정보 위주로 일부러 단순화시켰고, 불신자 전도 위한 호소력 강화와 내용의 명확성 향

상 위해 필요시 통역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연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사가 개입한 부분이 설교자의 의도에 충실했고 더 나아가 성경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설교자의 발화 형태에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인식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김장환 목사의 통역이 좋은 통역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 통역 유형에서 강조하는 정확한 정보전달 이외에 통역사의 자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장환 목사는 설교자와 같은 수준의 소명의식을 갖고, 자신의 설교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통역되는 내용에 대해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 열정적으로 통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터넷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한국전도대회 당시 동영상 통해 설교자와 통역사가 한 몸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같은 제스처, 같은 억양, 같은 목소리 높낮이 등 비언어적 요소가 일체감 있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설교통역의 충실성에 주는 함의

1973년 한국전도대회 설교통역사례에 대한 분석이 설교통역에서의 충실성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설교통역 충실성의 개념 정립에 주는 함의와 설교통역 충실성 확보를 위한 교육적 함의가 그것이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4.1. 설교통역 충실성의 개념정립에 주는 함의

하나님 중심의 텍스트를 통역하는데 있어서 설교통역의 충실성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설교통역의 기본텍스트가 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실성의 개념을 내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함부로 축소, 확대하거나 추가 혹은 누락하는 것에 대해 여러 곳에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성경¹⁴⁾에서 나온 구절을 소개한다.

13) 필자의 김장환 목사와의 면대면 인터뷰는 2009년 6월 16일 극동방송 본사(서울 마포구 소재) 이사장실에서 진행되었다.

14) 성경인용은 개역한글 성경을 참고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2)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8)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18-19)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충실한 해석 및 통역을 요구하고 있다. 설교자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통역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간 매개자로서 설교자의 발화뿐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통역사의 역할이 단순 보조자로만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약 구약으로 이루어진 성경 66권 중 예수 탄생 이전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경(39권)에서 통역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예시가 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 노예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사명을 주며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담판 지을 것을 명한다. 이에 모세가 자기는 본래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출애굽기 4:10)라고 말하며 이집트에 가는 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관련 구절은 아래와 같다.

“그(아론)가 너(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4:16)

비록 동일 언어의 상황이지만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는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가 의도한 것을, 모세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아론이 대신 소통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통역의 원리와 유사하다. 주목할 것은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한다”는 것이고 아론이 모세와 동일한 선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파라오에게 전달한 것을

통해 설교자와 설교통역사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통역사는 마치 설교자의 입이 된 것처럼 내용의 단순 전달이 아닌 내용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국 충실한 설교통역은 언어 측면 뿐만 아니라 설교자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퍼마넥(Furmanek)은 설교통역을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수직적 측면에서는 설교통역이 ‘하나님의 부르심(God’s call)’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설교의 근거가 되는 성경말씀에 대한 충실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설교자와의 합동공연(co-performance)’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설교통역사는 연사와 더불어 공동 설교자(co-preacher)라는 정체감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전달력의 충실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Tipton and Furmanek 2016: 241-245).¹⁵⁾ 한편 다운니(Downie)는 설교통역사를 통해 설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설교자는 통역사를 동역자(partner)로 인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통역사를 ‘통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사와 ‘더불어’ 설교하는 것(preaching through interpreters to preaching with interpreters)임을 강조하였다(Downie 2014: 66).

설교통역이 이중의 측면(수직적, 수평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학문적으로 설교통역 충실성의 전통적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통역 목적에 따라 통역을 단어, 표현, 문장 정확성만 갖고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설교통역의 경우 설교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충실성뿐만 아니라 설교의 기초가 되는 원텍스트(성경)에 대한 충실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 이를 설교통역의 ‘이중의 충실성(dual loyalty)’이라고 앞서 표현해 보았는데, 1973년 빌리 그래함 한국전대회에서의 김장환 목사의 통역은 이러한 설교통역의 이중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4.2. 설교통역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교육적 함의

다음으로 빌리 그래함 한국전대회에서의 설교통역을 통해 충실한 설교통역을 위한 교육적 함의도 도출해 볼 수 있다. 설교통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15) 이 부분은 이 책의 공저자 중 퍼마넥(Furmanek)의 의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퍼마넬이 설명한 설교통역의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과도 맥을 같이 한다.

우선 언어적으로는 설교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충실한 통역뿐만 아니라 원 텍스트(성경)에 대한 충실성도 함께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수직적 측면을 고려한 접근으로 설교통역사가 충실히 통역해야 할 텍스트가 설교자에게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설교의 근거가 되는 성경 충실성에도 있기 때문이다. 설교자 메시지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교자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배경지식 습득을 위해서도 성경에 대한 지식함양이 필수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설교자가 성경중 일부 구절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이를 정확하게 옮기기 위하여 성경 표현과 어휘에 대한 지식 증진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설교통역사는 성경과 설교자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재구성이 허용되고 특히 성경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부차적인 정보의 경우(예화, 개인 비유 등) 언어의 형태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통역 전략이 효과적임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언어적인 측면에서는 통역사가 준 설교자로서의 통역사 역할 인식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다. 설교통역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서도 청중은 설교자와 통역사를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교통역 상황에서 통역사는 중립적, 소극적 매개자가 아닌 준 설교자 혹은 동료 설교자(co-preacher)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텍스트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도 같이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설교자와 합동 공연하는 수평적 측면을 상기시키는 훈련으로 설교자의 언어적 요소를 강화하고 청중의 몰입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연사와 일체감 있게 비언어적으로도 전달할 것을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나가면서

이상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성공적인 설교통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의 김장환 목사의 설교통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교통역의 충실성 개념의 정립 가능성을 논의해보았다. 기존의 주요 전통적 통번역 이론을 토대로 접근하여 보면 김장환 목사의 설교통역이 설교자 발화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통역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설교통역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설교의 원천이 되는 성경(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성이 있었고, 설교자의 발화에 대한 정보 전달뿐 아니라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 자신의 설교처럼 설교자(co-preacher)의 자세로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김장환 목사의 통역 사례가 설교통역의 충실성 개념 정립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통역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사의 설교내용에 대한 ‘이중의 충실성(dual loyalty)’의 의무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교통역의 충실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사(설교자)의 설교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메시지의 근거가 되는 성경에 충실한 통역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이 설교는 이중의 충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설교통역에서 충실성은 언어적 형태의 보존을 넘어서 설교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재구성도 포함한다. 설교자의 발화내용을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기 위한 재구성을 설교통역의 충실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셋째, 설교통역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요소뿐 아니라 연사와 일치되는 통역사의 몸짓, 목소리 높낮이, 태도 등 비언어적 요소가 중시된다. 통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설교자와 동일한 책무가 있음을 기억하고 설교자와 같은 소명의식과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설교통역의 충실성에 대한 이러한 분석내용은 통역의 충실성 개념이 통역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거듭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교통역의 충실성 개념은 설교통역의 교육적 함의도 풍성하게 제공해준다. 이 글에서는 설교통역의 교육적 함의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가희·박윤희 (2013) 「충실성의 딜레마: 금기비속어 fuck의 번역 양상 및 번역 수용에 관한 설문연구」, 『번역학연구』 14(4): 7-35.
- 김가희 (2016) 「설문연구에 기반한 ‘충실성’에 대한 소고: 『위대한 개츠비』를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9(1): 5-24.
- 김순미 (2010) 「충실성과 창의적 개입 사이의 딜레마 - 언어유희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2(1): 49-77.
- 김용국 (2018) 「빌리 그레함의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역사신학연구』 33: 157-186.
- 김중기·정진홍·정학섭 (1982) 『한국교회성장과 신앙양태에 관한 조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 김혜경 (2009) 「『한중록(閑中錄)』과 The Memoirs of Lady Hyegyöng 비교 연구 - 충실성과 가독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0(3): 53-75.
- 김혜경 (2018) 「회교 번역의 충실성과 공연성의 경계에서 - 『에쿠우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2): 89-115.
- 대한기독교서회 편집부 (1973) 『복음의 대향연-빌리 그레함 한국 전도대회 전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편 (1983)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 발단에서 결과까지』, 서울: 한국방송선교센터.
- 빌리 그레이엄 (2001) 『빌리 그레이엄 자서전 : 내 모습 이대로』, 서울: 두란노.
- 신지선 (2012) 「국내 번역윤리규정의 현황 및 관련 규정의 필요성 고찰」, 『T&I Review』 2: 113-128.
- 신혜인 (2013) 『한국교회 내 설교통역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혜인 (2015) 「한국교회 설교통역의 특징에 대한 연구 - 커뮤니티통역 및 국제회의통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2): 87-103.
- 윤성우·이향 (2018) 「번역윤리 담론의 패러다임 변화」, 『번역학연구』 19(5): 77-95.
- 이어령·이재철 (2012) 『지성과 영성의 만남』, 서울: 홍성사.
- 이지은 (2011) 「사법인들과 통역인들의 사법통역 규범에 관한 인식 연구」, 『번

- 역학연구』 12(3): 197-224.
- 이향 (2017) 「번역윤리 논쟁: 베이커(Baker) vs 뎀(Pym)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3): 207-226.
- 이향 (2018) 「통번역사의 직업윤리」, 『통역과 번역』 20(2): 145-161.
- 정장복 (2011) 『설교 전달의 클리닉』,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 최소희 (2001a) 「통역 번역의 충실성」, 『통역과 번역』 3: 267-284.
- 최소희 (2001b) 「통역의 충실성 통역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가?」, 『통번역학연구』 5: 215-239.
- Balci Tison, Alev (2016). *The Interpreter's Involvement in a Translated Institution: A Case Study of Sermon Interpreting* (Doctoral dissertation), Rovira i Virigili University, Tarragona, Spain.
- Downie, Jonathan (2014) 'Toward a Homiletic of Sermon Interpreting,' *The Journal of the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14(2): 62-69.
- Downie, Jonathan (2016) *Stakeholder Expectations of Interpreters: A Multi-Site, Multi-Method Approach*, Heriot-Watt University Press.
- Harkness, Nicholas (2017) 'Transducing a Sermon, Inducing Conversion: Billy Graham, Billy Kim and the 1973 Crusade in Seoul,' *Representations* 137(1): 112-142
- Hokkanen, Sari (2016) *To Serve and to Experience An autoethnographic study of simultaneous church interpreting*, Tampere University Press.
- Kolawole, S. O. and Salawu, Adewuni (2008) *The Literary Translator and the Concept of Fidelity: Kirkup's Translation of Camara Laye's L'Enfant noir as a Case Study*, *Translation Journal* 12(4). At: <https://translationjournal.net/journal/46lit.htm>.
- Karlik, Jill (2013) *Interpreter-mediated Bible Readings from English into Manjaku in a Group of Gambian Church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eeds Press.
- Nida, Eugene and Taber, Charles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 Pöschhacker, Franz (2008)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Routledge.

- Pollock, John (1979) *Billy Graham, Evangelist to the World: An Authorized Biography of the Decisive Years*, New York: Harper & Row.
-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ers.
- Tipton, Rebecca and Furmanek, Olgierda (2016) *Dialogue Interpreting: A Guide to Interpreting in Public Services and Community*, London: Routledge.

<인터넷 자료>

- 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 동영상, Available at: www.youtube.com/watch?v=UOUzbbHe_lg.
- 박동현 기자 (2016) 「1973년 5월 30일 - 6월 3일, 빌리 그레함목사 초청 여의도 광장 집회」, 『목장드림뉴스』 2016. 6. 18.자, Available at: www.p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
- 서화동 기자 (2013) 「김장환 목사 “40년 전 여의도 전도집회가 기독교 성장 원동력”」, 『한국경제신문』 2013. 5. 30.자, Available at: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3053040701>.
-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2018) ‘Seoul, South Korea: Billy Graham’s Largest Ever Crusade,’ February 9. Available at: www.youtube.com/watch?v=PQDLjd57vdE.
-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2019) ‘A Look Back at Billy Graham’s Largest Ever Crusad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Stories, June 3. Available at: billygraham.org/story/seoul-south-korea-a-look-back-at-billy-grahams-largest-ever-crusade/.

[Abstract]

**A Study on Fidelity in Sermon Interpreting:
Implications from Sermon Interpreting of Billy Graham Korea Crusade 1973**

Shin, Hayne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the fidelity issue in sermon interpreting and argues that fidelity in sermon interpreting involves dual loyalty, i.e. to the preacher and to the word of God which is central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As interpreters are called to partner with preachers in delivering the word of God accurately and fluently, it is important for sermon interpreters to see themselves not as information providers only but as co-preachers and display ownership in the message.

To confirm conditions for faithful and effective sermon interpreting, this paper looks into the interpreting of Rev. Billy Kim who interpreted for Rev. Billy Graham in the 1973 Crusade in Seoul, Korea, which is recorded as the largest ever crusade by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BGEA). The study found that while some simplification, addition, alteration were made in verbal aspects of communication, they were negligible as the core idea of the bible and of the preacher remained intact and were clearly and powerfully communicated in lively manner with exact replication of non-verbal aspects of communication.

▶ Key Words: sermon interpreting, Billy Graham Korea Crusade 1973, dual loyalty, co-preacher, ownership

▶ 주제어: 설교통역, 1973년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 이중의 충실성, 동료 설교자, 주인 의식

신혜인

한동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객원 교수

hayneshin@hotmail.com

관심분야: 설교통역, 커뮤니티통역, 통번역교육, 번역사회학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4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6일